특별선교주일



예배로의 부름 및 기도

연합감리교구호주일

본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자료의 일부이며, “위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교회와 예배의 상황에 맞게 본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 꾸러미에 담긴 다른 자료와 함께 사용하세요. 본 자료는 **2025년 3월 30일의 성서일과표 본문인 여호수아 5:10-12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배로 부름

인도자:
우리는 오늘 시련의 때에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모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폭풍과 계절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인도자: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인도자:
재난 중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는 구호위원회와 함께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상한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인도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재난의 폐허를 딛고 재건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희망과 치유를 제공하는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도자:
이스라엘의 삶이 광야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위기에서 회복으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위로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도자: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자원을 드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다 같이:
아멘.

기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폭풍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구호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손길, 자원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상처가 있는 곳에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